



가온전선(주)

000500 | KOSPI | 전기전자

구분 : 정기주주총회 | 일시 : 2014. 03. 28 | 장소 :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45번길 120 (금정동) (가온전선 본사 강당)

Executive Summary

▶ 가온전선은 금번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이사 선임의 건, 그리고 이사와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을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이사 선임 후보자 가운데 구자엽 대표이사의 재선임은 구자엽 후보자가 최근 사회적 파장과 소액주주와 LS그룹의 피해를 유발한 JS 전선의 대표이사인 점, 그리고 가온전선이 LS그룹 오너 일가가 소유했던 비상장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오너 일가의 부의 증식을 지원했다는 의혹, 아울러 구자엽 후보자가 과거 럭키생명 주식을 헐값으로 매매한 데 있어서 연루되어 양도세와 증여세를 부과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내이사로 재선임 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 의견을 권고한다.

Agenda & Recommendations

| No | 의안 | 이사회 | 네비스탁 |
|---------------------|-----------------|-----|-------|
| 제1호 | 제6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1,000원 | | | |
| 제2호 | 이사선임의 건 | 찬성 | 일부 반대 |
| 2-1 | 사내이사 구자엽 재선임 | 찬성 | 반대 |
| 2-2 | 사내이사 김성은 재선임 | 찬성 | 찬성 |
| 2-3 | 사내이사 천성복 재선임 | 찬성 | 찬성 |
| 제3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 제4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의안 세부 내역]

▶ 제1호 의안 : 제66기 (2013.01.01 ~ 201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예정 내용 :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1,000원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3명 선임)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
| 사내 이사 | 구자엽 | 50.12.30 | 3 | 재선임 | LS산전/가온전선 대표이사 회장 | LS전선/가온전선 회장 | 명지대 국문학과 |
| | 김성은 | 58.11.07 | 3 | 재선임 | 가온전선 영업본부장 | 가온전선 사장 | 서울대 무역학과 |
| | 천성복 | 62.08.21 | 3 | 재선임 | 가온전선 CFO | 가온전선 영업본부장 | 동국대 회계학과 |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구분 | 전기 | 당기 |
|----------------|------|------|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 4(1) | 4(1) |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40억원 | 40억원 |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구분 | 전기 | 당기 |
|----------------|-----|-----|
| 감사의 수 | 1 | 1 |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2억원 | 2억원 |

| [제1호 의안] 제6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
| <div><div>Vote Recommendation</div><p>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p><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전년 대비 자산은 약 63억원 감소하여 총 자산은 약 5,136억원 수준, 부채는 약 132억원 감소한 2,385억원 수준이며 이익잉여금 증가 등에 따라 자본 총계는 약 69억원 증가한 2,751억원 달성-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242억원(12%) 감소해 8,818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3억원 증가한 205억원을 달성했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약 40억원 증가해 108억원 달성- 결산배당은 주당 1,000원으로 배당 총액은 약 39억원 (전년도 배당 주당 600원)-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 제안</div> | |

Discussion

Analysis

▶ 제6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6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존중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제1호 의안인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한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반대** 의견을 제안함.

- 사내이사 후보자 후보자 구자엽은 관계회사인 JS전선의 대표이사로서 최근 문제가 된 JS전선의 원전 비리 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LS그룹 오너 일가의 자제들이 소유했던 비상장 회사와 가온전선과의 거래를 통해 부의 편법적인 분배를 유도했다는 의혹, 그리고 과거 럭키생명 주식을 헐값에 거래해 양도세와 증여세를 부과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내이사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 의견을 권고함

Discussion

Proposal

▶ 이사 선임의 건

[이사 후보자 세부 내역]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
| 사내 이사 | 구자엽 | 50.12.30 | 3 | 재선임 | LS산전/가온전선 대표이사 회장 | LS전선/가온전선 회장 | 명지대 국문학과 |
| | 김성은 | 58.11.07 | 3 | 재선임 | 가온전선 영업본부장 | 가온전선 사장 | 서울대 무역학과 |
| | 천성복 | 62.08.21 | 3 | 재선임 | 가온전선 CFO | 가온전선 영업본부장 | 동국대 회계학과 |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이사의 의무와 자질

▶ 사내이사로 부적절한 구자엽 이사 재선임 반대

가온전선의 최대주주는 구자홍 외 오너 일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온전선의 대표이사 회장인 구자엽 사내이사 후보자는 구자홍 최대주주의 동생이며 가온전선 지분 약 3.4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의 일원이다.

구자엽 후보자는 지난 2013년 3월 LS그룹 계열사인 JS전선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JS전선의 이사로 신규 선임되었으며 JS전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지금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JS전선은 지난해 불량 원전 케이블을 납품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원전 비리 사태의 중심에 서면서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으며 LS그룹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 그리고 JS전선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LS그룹은 JS전선을 자진 상장폐지하고 사업을 정리하는 등 사실상 JS전선을 청산하는 결정을 신속하게 단행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영진의 잘못으로 비리 사태에 연루되어 주가가 폭락하는 등 기업가치가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에 현저히 미달하는 공개매수로 원전 사태에 책임을 진다는 생색내기를 하는 등 상당한 논란과 잡음을 불러일으켰다.

구자엽 후보자는 JS전선의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일련의 JS전선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JS전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구자엽 후보자의 주주 권익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낮은 이해 수준을 엿볼 수 있었다. LS그룹은 JS전선의 지분 70%를 보유하면서 배당과 매출 거래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확보하였으나 JS전선이 원전 비리에 연루되면서 이용 가치가 사라지자 재빨리 사업과 회사를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수 소액주주들이 주가 하락으로 고통을 분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낮은 수준의 공개매수로 사태를 무마하고 생색내기를 하여 시장과 주주들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가온전선은 LS그룹 오너 일가의 자제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와 거래를 통해 오너 일가의 부의 증식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가온전선은 2012년과 2011년 관계회사인 LS글로벌로부터 약 4~5천억원 수준의 원자재를 매입한 바 있다. 그 이전에도 가온전선은 매년 LS글로벌로부터 수천억원의 원자재를 매입하고 있다. 현재 LS글로벌은 LS의 100% 자회사이지만 그 이전에는 LS글로벌의 지분 34%를 LS그룹 오너 일가의 자제들이 보유하고 있었다. LS글로벌은 2005년에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되었는데 설립과 동시에 LS그룹 계열사들을 상대로 수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몸집을 키운 LS글로벌은 설립 6년만에 LS에 매각되었으며, 매각을 통해 오너 일가의 자제들은 주당 5천원에 취득한 LS글로벌 주식을 20배가 넘는 주당 100,150원에 매각하면서 각각 수억원의 매각 차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오너 일가의 부의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LS그룹의 자원과 이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구자엽 후보자는 과거 2005년 럭키생명 주식을 헐값에 매매하는데 연루되어 조세 당국으로부터 양도세와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다. 구자엽 후보자 등은 LIG그룹으로부터 럭키생명의 주식을 주당 10원에 매입했으며 당시 조세 당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에 주식을 넘겨 받았으므로 증여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구자엽 후보자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부과된 세금 대부분에 대해 그대로 인정했다.

JS전선 사태에서 보여준 등기임원으로서 자질과 인식, 그리고 가온전선과 LS글로벌 사이의 거래에 대한 의혹, 마지막으로 기업 자산의 헐값 매각에 연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구자엽 후보자가 등기임원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자엽 이사 후보자의 재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하는 바이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가운데전선의 이사 수는 전년과 동일하게 4명(사외이사 1명 포함)이며, 상정된 보수 한도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40억원, 2012년 가운데전선은 40억원의 보수 한도 가운데 약 23.5억원을 집행하였음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과 동일하게 감사 보수 한도액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감사 1인에 대해 2억원으로 상정하였으며, 2012년 집행 실적은 6천 5백만원
- 전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정된 의안이며, 전년도 한도액과 집행 실적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찬성 의견을 제안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개별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나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 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보수의 책정과 지급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권고

Discussion

Proposal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구분 | 전기 | 당기 |
|----------------|------|------|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 4(1) | 4(1) |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40억원 | 40억원 |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구분 | 전기 | 당기 |
|----------------|-----|-----|
| 감사의 수 | 1 | 1 |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2억원 | 2억원 |

이사 보수 지급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필요

▶ 이사 보수 지급 체계의 불투명

가온전선의 최근 사업연도의 이사 수와 보수한도액, 그리고 실제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2012 | 2013 | 2014 |
|-----------------|-------|-------------------|-------|
|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 4 (1) | 4 (1) | 4 (1) |
| 주총승인금액(백만원) | 4,000 | 4,000 | 4,000 |
| 실제 지급액 (단위:백만원) | 2,346 | 1,429 (9월말 기준) | (예정) |

위의 표에서와 같이 보수 한도액과 실제 지급액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않으므로 금번 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제안한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제안한다. 다만 임원의 보수는 주주가 임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므로 개별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와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 그리고 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감사 보수 한도액과 실적

가온전선의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 수와 보수한도액, 그리고 실제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2012 | 2013 | 2014 |
|-----------------|------|----------------|------|
| 감사의 수 | 1 | 1 | 1 |
| 주총승인금액(백만원) | 200 | 200 | 200 |
| 실제 지급액 (단위:백만원) | 65 | 47 (9월말 기준) | (예정) |

위의 표에서와 같이 보수 한도액과 실제 지급액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않으므로 금번 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제안한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제안한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네비스탁의 독립적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의견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견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의 권고 및 신용평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의 내용은 네비스탁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네비스탁이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네비스탁은 본 보고서를 포함한 기타 자료, 정보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를 포함한 네비스탁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네비스탁의 소유입니다.

㈜네비스탁

www.navistock.com